

중진출기업 생산 현장을 가다  
금호타이어텐진공장 <하>

국내보다 시간당 생산성 20~25% ↑

금호타이어의 중국 공략은 끊임없는 기술개발로부터 시작된다.

금호타이어는 텐진공장 준공에 이어 지난해 9월 텐진공장에서 5분 거리에 '금호중국어기술연구소(KCTC)'를 설립했다. 미국·유럽에 이어 해외에서 세번째 설립된 이 연구소는 중국에서 생산되는 첨단타이어 연구개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연구인력은 한국에서 파견된 15명, 현지채용 88명 등 102명에 달한다. 2008년에는 134명으로 늘어난다.

이들 연구인력은 중국 시장용·수출용 제품과 중국공장 생산 장착용

첨단타이어 연구 개발 '싱크탱크' 갖춰  
문화 차이 줄이기 위해 복지시설 완비

타이어(OE) 제품개발을 비롯해 중국 시장의 제품정보 조사 및 시장동향 분석, 중국공장 기술지원·시험평가 등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연구개발과 함께 텐진공장이 특히 관심을 갖는 분야는 중국과의 문화차이를 좁히는 작업. 현재 텐진공장에는 한국인 관리직 14명, 중국 근로자 1천400명이 근무하고 있다. 중국인력의 대부분은 고교졸업자로, 평균연

령은 25세로 아주 젊다.

이들은 1979년 중국정부가 '한자녀가 운동'을 펼친 이후 태어난 이른바 '샤오황띠(小皇帝·과보호를 받고 자란 외동아이라, 작은 황제와 같다)' 세대에서 다루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입사 3개월 이내 근로자들의 이직률이 20~30%에 달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정승우 텐진공장 총경리는 "귀하

게 큰 탓인지 아니면 문화 탓인지, 대부분이 특별한 동기부여가 없으면 자발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생산을 지장이 없도록 세심한 관리규칙을 만드느라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들의 이직을 막고 사기진작을 위해 텐진공장은 중국 제조업체보다 20% 가량 높은, 매달 1천800~1천900위안(한화 23만~25만원)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 또 사내에 흡연실을 만들고 외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를 완비하는 등 복지시설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초창기 4%에 달하는 불



텐진공장은 금호타이어가 중국 타이어시장 1위, '세계 빅 5' 진입을 앞당길 수 있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완성 직전의 타이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텐진공장 내부. /중국 텐진=이종태기자 mjna@kwangju.co.kr

량률은 3%대로 감소했고, 올 말에는 1%대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텐진공장 관계자의 예기다.

생산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텐진공장의 경우 광주나 곡성공장에 비해 인구대비 시간당 생산성이 20~25% 높은 편이다.

공회(公會·노동조합)는 아직 격정

할 단계는 아니다. 회사가 설립된지 1년도 안된 상태여서 공회설립 움직임조차 없는 상태다. 그러나 오는 2010년까지 모든 외국인 회사에 대해 공회를 조직하라는 중국 정부의 방침에 대비, 텐진공장은 중국형 인사·노동 관리제도와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정 총경리는 "신차와 도로환경 등 현지 맞춤형제품을 경쟁사보다 빨리, 더 많이 만드는데 주력할 것"이라며 "금호타이어가 중국 1위, 세계 빅 5 타이어 회사로서의 진입을 앞당기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텐진=이종태기자 jilee@

인터넷 쇼핑몰  
설 띄값 준다?

현금 등 결제 고객 유치전

인터넷쇼핑몰들이 설 대목을 잡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을 대거 내걸고 고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지난달 31일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 롯데닷컴(www.lotte.com)은 오는 2월21일까지 '총 6억원의 설날 자금을 드립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구매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현금 100만원, 100명에게 현금 10만원, 500명에게 롯데포인트 3만원 등 현금과 포인트를 제공한다. 또 20만명의 당첨자에게 포인트 3천원씩 모두 6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제공한다.

우리닷컴(www.woori.com)은 2월12일까지 '설 귀향길 가진 일석이조 상품권'을 열고 TV, 주방가전, 네비게이션, 디지털카메라, 컴퓨터 등의 가전 상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1등 5만원(10명), 2등 1만원(50명), 3등 5천원(200명) 등 총 200만원의 우리닷컴 적립금을 증정한다. /연합뉴스

설 차례상 비용 12만 9,700원

작년보다 1.8% 줄 듯

올해 설 차례상 준비 비용이 작년보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협회가 서울 시내 재래시장에서 제수용품 22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 지난달 31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비용은 12만9천700원으로 작년 13만2천원보다 1.8%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과일류는 전반적으로 작년과 같은 수준의 시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과값이 작년보다 20% 떨어져 중품 사과 5개와 배 5개, 귤감 10개를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작년 3만5천원에서 3만2천500원으로 7.2% 줄어든 것으로 예상됐다.

물가협회 관계자는 "작년에 집중호우 등 재해가 거의 없어 사과 작황이 좋은 데다 산지출하량이 늘어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육계류는 닭고기 가격이 조류 인플루엔자(AI) 여파로 1마리당 작년보다 16.7% 내린 3천원에 거래되면서 쇠고기 1kg, 돼지고기 1kg, 닭고기 3kg, 달걀 10개에 작년보다 3.7% 내린 4만6천5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나물류는 도라지와 고사리, 숙주를 375g씩 준비하는 데 4천500원으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대부분 중국산과

종류	단위	가격(원)	작년(원)
도라지	375g	2,000	-
고사리	375g	2,000	-
숙주	375g	500	-
사과	중품5개	10,000	▼ 20.0
배	중품5개	12,500	-
귤감	중품10개	10,000	-
김	100알	1,200	-
복어포	중품	3,500	-
조개	25cm	3,500	-
홍합	1g	8,000	-
쇠고기	500g	30,000	-
돼지고기	500g	6,000	-
달걀	1g	9,000	▼ 16.7
쌀	1g	5,000	-
대추	330g	8,000	▲ 33.3

북한산이었으며 수산물도 김 20장과 복어포 중품 1마리, 조기 1마리, 동태포 1kg에 1만6천200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견과류의 경우 작황이 부진한 대추가 330g당 작년보다 33.3%나 오른 8천원에 거래돼 밤1kg과 대추 330g을 준비할 경우 작년보다 18.2% 오른 1만3천원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BTL사업, 中企 경영난 부추겨

광주·전남 중기연합회, 공공기관 직접 납품기회 박탈

광주·전남중소기업연합회(회장 장춘상)가 정부 주도의 BTL(민간자본 유치)사업이 지역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박탈하고 경영난을 가중시킨다면서 이를 대폭 개선해줄 것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지난달 31일 광주 센트럴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BTL사업이 정부 주도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설계와 시공 등을 민간 수주업체에 전부 위탁함으로써 공사용 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체들은 수주업체의 하청업체로 전락했다"면서 "이

에 따라 공공기관에 대한 직접 납품 기회를 상실함은 물론 저가납품 등 부담 하도급 형태로 시달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특히 "BTL사업은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공사용 자체 직접구매(분리발주)' 활성화 정책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또 대형 외주업체의 수주물꼬를 터줘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도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연합회는 ▲중소기업청

▲BTL(Build-Transfer-Lease)= 민간부문이 우선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한 후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자체로 이관하고, 국가·지자체·시설운영전문화사 등에 임대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 정부는 예산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긴급한 공공시설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이 제도를 도입했다.

장이 고시한 공사용자재의 경우 BTL사업에서 제외하고 주무관청에서 직접 구매할 것 ▲BTL사업 시행사의 초저가 구매행태가 근절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이 감독을 강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종태기자 jilee@

"중기제조업 경기 올해도 불황"

企銀 경제연 보고서

중소제조업 경기의 불황 국면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 경기가 호황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수출보다 내수 경기가 더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소비 증가세도 둔화될 것으로 보여 더욱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31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기업은행 기업경제연구소는 '1월 IBK 금융경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내다봤다.

보고서는 우선 최근 중소기업 경기가 한국경제의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는 수출보다 내수 의존적이라고 분석했다.

산업형태별로 봤을 때 수출과 관련이 많은 가공조립형 산업에서 제조업

전체와 중소기업의 생산증가를 격차는 8.3%포인트로 가장 컸다. 이에 비해 전통적인 내수 업종인 생활관련 산업에서는 제조업 전체와 중소기업 간 격차가 2.2%로 비교적 적게 나타났다.

즉, 내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수출이 성장 동력이 됐던 지난해 경기 회복기에 중소기업들은 '뽕골'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최근 들어 내수 부문에서도 제조업 전체와 중소기업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중기청

산학협력 82억 지원

과제당 최고 1억원까지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청장 장순호)은 산학협력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중소기업 산학협력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56.6% 늘어난 82억 원을 지원한다.

산학연 협력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14억원의 규모로 이공계 대학교에 전년도 진행중인 18개 업체(협력실)를 포함해 50여개의 산학협력실을 지원할 계획이며, 과제(업체)당 최대 2년간 1억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사업공고 등 자세한 내용은 www.smba.go.kr 또는 http://sanhak.smba.go.kr을 참고하면 된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